

[야옹]

20181017 윤도경

S#1. 강의실/오전

연주(20/여)가 교수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물리학 강의를 한창 진행중인 강의실.

교수

기본적인 이론설명은 이만하면 됐고, 여기 혹시 슈뢰딩거의 고양이에 대해 들어본 사람
있나요? (사이) 앞에 손 든 남학생 혹시 무슨 실험인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학생

상자 안에 고양이와 독극물이 들어있고, 그 독극물은 50퍼센트 확률로 깨집니다. 뚜껑을
열어 보기 전까지는 안을 절대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고양이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라는 내용의 실험인데..

교수

그 고양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학생

음 50퍼센트 확률로 죽었겠죠. 상자 속을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교수

학생은 살아오면서 50퍼센트로 살아있고 50퍼센트로 죽어 있는 고양이를 본적이 있나요?

학생

아뇨.

교수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운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는 없어도, 상자 안의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인거예요.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연주의 표정이 무언가 의문을 가진 듯하다. 번쩍 손을 드는 연주.

연주

교수님 질문 있는데요. 그 왜 고양이예요?

교수

네?

연주

아니 고슴도치도 있고 기니피그도 있는데 왜 고양이를 넣은거냐구요.

교수

그건 제가 슈뢰딩거가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음 슈뢰딩거가 고양이를 좋아했나보죠 뭐.

킁킁대는 몇몇 학생들. 의문이 풀리지 않은 표정의 연주.

교수

내일은 어린이날이라서 휴강이에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수업 진행할게요.

무표정한 연주. 학생들이 무리 지어 강의실을 빠져나간다. 프로젝터 전원이 꺼진다.

S#2. 길가/오후.

타당탕. 자판기 덮개를 열어보는 연주. 안에 아무것도 없다. 동전지갑에서 동전을 꺼내 다시 자판기에 넣는 연주. 동전이 부족하다. 비어있는 지갑을 바라보는 연주. 발로 뺑 자판기를 차는 연주. 무언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생수병을 집어가는 연주의 손.

Cut to.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의 태양. 헤드셋을 끼고 별걱별걱 물을 들이키는 연주. 걷다가 길 한쪽 쓰레기 수거함에 생수병을 버린다.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진 고양이 인형이 연주의 눈에 들어온다. 어디선가 “야옹” 울음소리가 들린다. 두리번거리며 소리의 근원지를 찾는 연주. 고양이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박스들.

S#3. 연주의 집/오후

현관문이 열린다. 부엌에서 이모의 통화소리가 들린다. 현관을 들어서다 멈칫하는 연주.

연주 이모

이번에도 현금으로 줄거지? ... 또 한번 바쁘다고 핑크 내봐. 내가 지금까지 우리 언니 일 덮어준거 말짱 도루묵 되는 수가 있어 ... 응 똑같이 500. 당신이 나한테 싸질러 놓고 간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한거 알지? ... 나 내일 아침 9시에 일 끝나니까, 끝나고 신담 역으로 갈게 ... 알았어 나 이제 일 나가야돼. 끊어.

전화를 끊고 분주하게 나갈 준비를 하는 이모. 이내 현관에 선 연주와 눈이 마주친다. 굳어지는 이모의 표정. 현관으로 다가오는 이모.

연주

누구예요?

연주 이모

이모 나가게 비켜줄래?

눈싸움을 하는 두사람. 연주를 지나쳐 현관문을 나서는 이모. 현관문이 닫힌다. 쿵.

S#4. 연주의 방/오후

침대에 누워 벽에 달력을 응시하는 연주. 빨간 글씨의 5월 5일.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내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낸다. 그 속에 오래된 사진 하나가 들어있다. 4살 쯤 되어보이는 연주가 웃으며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만들고 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연주.

Cut to. 연주의 방, 밤. 낯선 남자가 연주의 방으로 들어온다.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다. 서로를 응시하는 두 사람. 남자에게 다가가는 연주. 그의 넥타이를 확 잡아끈다.

S#5. 연주 집 안/새벽

침대에 누워있는 연주와 남자.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놓여있는 바지에서 담배를 꺼내 침대에 걸터 앉는다.

남자

피워도 돼?

남자를 빤히 바라보는 연주.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인다. 연주가 휴지통을 가져와 남자 앞에 가져다 놓고 남자 옆에 앉는다. 남자 손에 들려있는 담배갑을 가져가는 연주.

연주

니켈, 벤젠, 비소, 카드뮴..

남자

그런걸 왜 읽어. 담배 맛 떨어지게

연주

그게 지금 니가 피고 있는 거야.

남자

모르는 게 약이야.

서서히 타들어가는 담배. 연기를 지그시 바라보는 연주. 이내 남자의 손에서 담배를 빼앗아가 연기를 한 모금 들이킨다. 쿨룩 쿨룩 기침을 하는 연주. 다시 남자에게 담배를 건넨다. 담배를 받아 무는 남자. 한 모금 피우더니 휴지통에 담배를 버린다.

남자

나 못하냐?

연주

왜?

남자

너 표정이 안 좋아보여서

무언가 생각하는 연주.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본다. 12시 13분. 똑딱 거리는 초침소리.

연주

난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 제일 싫었다?

남자

왜?

연주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랑 놀러가는데, 난 못 그랬거든.

남자가 피식 웃는다.

남자

그래서 나 부른거야? 놀고 싶어서?

Cut to. 연주의 방. 아침. 알람소리가 울린다. 악몽을 꾸는 듯 표정이 일그러지는 연주. 이내 눈을 뜬다. 휴대폰을 열어 시계를 확인한다. 5월 5일 오전 7시 30분.

S#6. 길가 / 아침

길가 모퉁이에 숨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연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연주 이모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잠시 후 차가 한대 들어온다. 이모 앞에 멈춰서는 차. 운전석 유리창에서 손이 나와 이모에게 봉투를 건넨다. 봉투를 건네 받는 이모. 이내 유리창이 닫히고 차가 출발한다. 택시에 올라타는 연주.

Cut to. 오르막길을 오르는 연주. 아까 보았던 차가 한 주택 앞에 세워져있다. 집 앞에 멈춰서는 연주. 꽤나 고급스러워 보이는 집. 연주가 집을 올려다본다.

S#7. 집 대문 앞/오전

왔다 갔다 하며 대사를 연습하는 연주. 결심한듯 초인종을 꼭 누른다. 요란한 소리가 난다. 잠시 후 들리는 남자 목소리.

남자 V.O

누구세요?

연주

아 안녕하세요, 도시가스인데요, 안전 점검하러 나왔어요.

남자 V.O

다음에 오세요.

똑 끊어지는 도어벨. 연주가 다시 초인종을 누른다. 도어벨이 연결된다. 도어벨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연주

오늘 꼭 점검 받으셔야 하거든요. 다른 날은 제가...

연주의 말을 끊듯 똑 끊어지는 도어벨. 잠시 후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긴장하는 연주. 대문이 열린다. 깔끔한 인상의 마흔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셔츠 단추를 잠그며 나온다. 그를 바라보는 연주. 연주를 스캔하듯 바라보는 남자.

S#8. 남자 집 안/오전

집 안으로 들어오는 연주와 남자. 연주 조심스럽게 집 안을 이리저리 둘러본다. 비싸보이는 물건들과 액자들이 벽에 걸려있다. 복도를 따라 거실로 들어오는 두 사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연주. 남자가 뒤를 돌아본다.

남자

부엌 여기에요.

당황하는 연주. 어색하게 부엌으로 들어간다. 어정쩡하게 가스레인지 앞에 선 연주. 벨브를 이리저리 둘러본다. 옆에서 남자의 시선이 느껴진다. 그때 안쪽 방에서 20대 중후반쯤 되어보이는 여자가 옷 매무새를 정리하며 나온다. 연주가 옆을 힐끔 바라본다. 여자를 바라보며 은은한 미소를 짓고있는 남자.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온다. 여자와 눈이 마주치는 연주.

여자

공휴일인데도 일하시나보네.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남자.

남자

기계 안들고 오셨어요?

연주

네?

남자

보통은 점검하러 오실 때 기계 들고 오시던데

남자가 기계를 잡은 것처럼 손을 살짝살짝 휘적인다. 당황한 연주가 자신이 메고 온 책가방을 뒤적거린다. 연주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남자. 그런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 왠지 연주에게 질투심을 느낀다.

여자

오빠

남자

응?

여자

내일 뭐해?

남자

내일은 수술 일정 짝 찻어. 왜?

여자

나 오빠 병원 가보고 싶은데, 어딘지 알려주면 안돼?

여자에게 미소 짓는 남자. 이내 연주를 바라본다. 책가방을 뒤적거리고 있는 연주. 남자 무언가 생각하더니 여자의 등에 손을 올린다.

남자

오늘은 이만 가봐

여자

지금?

남자가 거실에서 명품로고가 적힌 쇼핑백을 들고 온다. 쇼핑백을 여자에게 건네는 남자.

남자

응 지금 나가.

남자가 여자의 등에 손을 올린다. 무언가 미심쩍은 표정의 여자. 이내 남자의 에스코트를 받아 복도로 나선다. 긴장하는 연주. 주위를 둘러본다. 조리기구 걸이에 걸려있는 과도가 보인다. 쿵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과도를 슬쩍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연주. 후다닥 부엌 밖으로 나간다. 연주가 복도 끝에서 쭈뼛쭈뼛 남자를 바라본다. 남자가 팔짱을 끼고 복도에 걸린 액자들을 감상하며 느긋하게 걸어온다.

연주

점검 끝났어요.

남자

벌써요?

연주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

제 이름은 왜요.

연주

거주자분이 맞는지 확인해야해서요.

팔짱을 끼고 액자를 바라보던 남자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는다. 표정을 관찰하는 연주.

연주

저는 이연주예요.

자신의 이름을 들은 남자의 반응을 살피는 연주.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액자를 바라보고 있다. 생각을 읽을 수 없다. 남자가 고개를 돌린다. 눈이 마주치는 두 사람.

남자

여기 어떻게 왔어요?

연주

네?

남자가 연주에게 천천히 다가온다. 주머니에 슬쩍 손을 넣는 연주. 과도를 잡은 손에 힘을 꽉 쥔다. 연주 앞에 멈춰 선 남자. 연주를 뵈는 표정이 여유롭다.

남자

낮이 익는데.

연주의 반응을 살피는 남자. 긴가민가하는 표정을 짓는다. 심장이 쿵쿵대는 연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연주를 뜯어보는 남자. 끝단이 늘어나 찌죄죄 해보이는 연주의 웃. 헤진 책가방. 남자의 시선이 점차 아래를 향한다. 검게 때가 타있는 연주의 흰 양말. 연주는 남자의 시선이 부끄럽다. 발가락을 꼬지락대는 연주. 그때 남자가 연주의 머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다. 부드러운 남자의 손의 감촉. 순간 풀려버리는 과도를 꽉 쥔 손의 힘. 연주에게 다정한 말투로 말하는 남자.

남자

집 나왔니?

연주

네?

남자
나중에 후회한다?

연주
후회요?

남자
집에 있는 가족들 마음이 어떻겠어. 안 그래?

뒷주머니에서 현금이 두둑히 든 지갑을 꺼내 오만원권 두장을 연주에게 쥐어주는 남자.

남자
이걸로 따뜻한 밥 사먹고, 집에 돌아가. 알겠지?

얼떨결에 오만원권을 건네 받는 연주. 얼굴이 벌겍게 상기되어있다. 연주의 불을 향하는 남자의 손. 뺨 살짝 위에서 멈춘다. 연주의 체온을 확인하는 듯한 남자의 손.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남자가 연주의 등에 손을 올리고, 이제 그만 나가라는 듯 앞으로 움직인다. 연주가 주춤주춤 움직인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액자들을 눈으로 훑는 연주. 사진 하나가 연주의 눈에 들어온다. **바다 앞으로 새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져있다.** 바다 사진. 그리고 그 사진을 바라보는 연주.

S#9. 연주 방/밤

어두운 연주의 방안. 침대에 누워 오래된 바다 사진을 응시하고 있는 연주. 남자의 집의 사진과 같은 장소이다. 자꾸만 남자의 말과 손의 감촉이 떠오른다. 자신의 머리와 불을 어루만져보는 연주. 스프르 눈이 감긴다.

S#10. 수술실/밤 (꿈)

어두운 수술실. 수술대에 위에 누워있는 연주 위로 조명이 켜진다. 배에 녹색천이 둘러져있다.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옆을 바라보는 연주. 손목 시계를 풀고 수술 도구들을 확인하는 남자의 뒷모습. 그 모습을 뻔히 바라보는 연주.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 남자가 연주를 바라본다. 눈을 획 피하는 연주. 남자가 슬쩍 미소를 짓더니 메스와 주사기를 들고 연주에게 다가온다. 남자가 연주의 배에 손을 올린다.

연주
아파요.

남자
자고 일어나면 팬찮아질거야.

남자가 연주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 맥박을 짚는다.

남자
떨려?

연주 남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연주

손 잡아주세요.

그저 미소를 짓는 남자. 손으로 연주의 눈을 감겨준다.

S#11. 남자 집 안/저녁 (꿈)

우당탕 소리가 들린다. 장식장의 장식품들을 미친듯이 바닥에 내팽겨치는 연주. 광기에 사로잡혀 초점 없는 눈. 분이 덜 풀렸는지 복도로 가 벽에 걸린 액자들을 마구 쓰러트린다. 방문이 열리고 잠옷을 입은 남자가 잠이 덜 깬 듯한 표정을 하고 나온다.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평온한 표정. 눈이 마주치는 두사람. 슬며시 미소를 짓는 남자. 그런 그가 연주의 눈에는 한없이 다정해보인다.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연주.

남자

이제 좀 괜찮아졌어?

남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는 연주. 발걸음이 위협적이다. 그대로 그의 품에 와락 안긴다. 연주의 머리를 감싸는 남자의 손. 자신의 머리를 감은 그 손의 감촉을 느끼는 연주. 그때 **남자가 나온 방에서 고양이 한마리가 나온다.** 눈빛을 교환하는 듯한 연주와 고양이. 고양이 학생 V.0

S#12. 강의실/오전

정신이 번쩍 드는 연주. 자신을 쳐다보는 교수와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교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왜 아직도 상자 속에 고양이를 넣었는지 고민하는거 아니죠?

학생들이 킁킁거리며 웃는다. 아직 생생히 남아있는 감촉.

교수

집중하세요. 자 제가 어디까지 말했죠? 맞다. 제가 이 고양이 실험에 웃긴 점이 있다고 했죠. 원래 슈뢰딩거가 이 실험을 고안한 이유가 기존의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파괴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상징하게 되었다는게?

S#13. 남자 집 대문/오후

대문 앞에 연주가 서있다. 연주의 손에 어린시절 바다 사진이 들려있다. 한 차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누르는 연주. 응답이 없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꼭 누르는 연주. 이번에도 응답이 없다. 실망한 표정의 연주, 이내 돌아선다. 그때 오르막길에서 차 한대가 집 쪽을 향해 올라온다. 본능적으로 벽 뒤로 몸을 숨기는 연주. 남자의 집앞에 차가 멈춰선다. 운전석에서 깔끔한 셔츠 차림의 남자가 내리고, 곧이어 조수석에서 처음보는 **삼십대 중반쯤 되어보이는 여자가** 내린다. 차 뒷좌석 문을 여는 남자. 뒷좌석에서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노란 버킷햇을 쓴 꼬마아이가 내린다. 남자는 꼬마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트렁크**로 가서 트렁크 문을 연다. 트렁크 내부를 응시하는 남자. 표정이 미묘하다. 꼬마 아이가 다가와 남자의 다리에 팔을 감는다.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보이곤 트렁크에서 여행용 캐리어와 애완 동물 케이지 하나를 꺼내는 남자. 여자에게 캐리어를 건네고, 한 손에는 케이지, 다른 한손엔 꼬마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남자. 케이지 속에 고양이 한마리가 들어있다. 고양이와 눈이 마주치는 연주 슬로우모션. **자신의 다리를 활던 정확히 그 고양이이다.** 남자가 꼬마에게 장난을 걸더니 귓속말을 한다. 남자의 말을 들은 꼬마아이가 웃으며 뒤를 돌아본다.

꼬마

엄마! 아빠가 오늘 저녁에 스파게티 해준대.

여자

헐 진짜? 동현이 좋겠네?

영락없이 화목한 가족의 모습. 그들이 나란히 남자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 모습을 벽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연주. 앞전

S#14. 바다/오후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있는 바닷가. 어린 연주가 모래성을 만들고있다. 파도가 잔잔히 모래성 사이로 스며든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남자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있다. 이곳 저곳을 찍다가 연주가 모래성을 만들고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린다. 찰칵. 사진에 연주가 걸리는 것이 못마땅해 보이는 남자. 연주에게 이리로 오라는 듯한 손짓을 보낸다. 밝게 웃으며 남자쪽으로 달려오는 어린 연주. 연주의 옷에 모래알들이 묻어있다.

S#15. 연주의 집/밤

손에 든 바다 사진을 바라보는 연주.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텅 빈 집안. 이내 거실로 들어와 부엌으로 향하는 연주. 벽에 걸린 달력을 눈에 들어온다. 5월 8일. 어버이날. 밥솥을 열어보는 연주. 안이 텅 비어 있다. 냉장고를 열어보는 연주. 안이 텅 비어있다. 냉동고를 열어보는 연주. 안에 인스턴트 냉동음식들이 가득 들어차있다.

Cut to. 식탁에 앉아있는 연주. 만두를 포크로 찢어 먹으며 색종이를 접고 있다. 식탁 옆에 빨간색과 초록색 색종이들이 놓여있다. 종이를 접다가 엄지손가락이 베이는 연주. 피가 맺힌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댄다. 그 모습이 무언가 고민하는 것처럼 보인다.

S#16. 남자의 집 대문/정오

초인종을 누르는 연주. 손에 붉은 색종이 카네이션이 들려있다.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남자 V.0

누구세요?

연주

가스 점검 왔어요.

뚝 끊기는 도어벨. 주머니에 카네이션을 넣는 연주. 대문 안에서 들리는 아빠를 부르는 동현의 목소리 V.0. “집에 들어가있어” 남자의 목소리 V.0. 이내 대문을 열고 나오는 남자. 여전히 젠뜰한 표정. 남자의 정원에 장난감 블럭으로 만든 성이 쌓여있다.

남자

집에 안 들어갔어?

아무 말 없이 눈빛교환 하는 연주와 남자. 남자의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

남자

나 보고 싶어서 온거야?

남자가 연주의 얼굴을 응시한다. 연주도 남자의 눈을 피하지 않는다. 붉어지는 눈시울.

연주

저 부탁이 있는데

남자

무슨 부탁?

연주

한번만 안아주세요.

남자에게 다가가는 연주. 남자가 연주를 슬쩍 밀어낸다. 곤란한듯 한숨을 쉬는 남자. 뒷 주머니에서 슬쩍 지갑을 꺼낸다. 남자가 연주에게 오만원권 두 장을 건넨다.

남자

장난치지 말고 얼른 돌아가.

연주

어디로요?

남자

니네 집.

남자를 응시하는 연주. 이내 대문 안쪽을 바라본다. 푸른 정원에 누워있는 연주가 보인다. 눈이 마주치는 두 사람. 정원에 누워있는 연주가 연주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연주. 내리쬐는 태양이 아찔하다. 연주가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카네이션을 꺼내 손을 남자에게 뻗는다. 여유롭던 남자의 표정이 굳어진다.

연주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남자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 안는 연주.

Cut to. 14썩 바닷가 남자의 다리에 와락 안기는 연주. 연주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연주가 있던 쪽의 사진을 찍는 남자. 이내 슬쩍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연주가 그대로 남자의 다리에서 밀려난다. 남자의 바지의 표면에 모래 알갱이들이 묻어있다. 바지에 묻은 모래를 손으로 확확 털어내는 남자. 흩날리는 모래알갱이들.

Cut to. 남자 집 대문 날카로운 정오의 햇빛. 안고 있는 두사람. 남자가 흡 소리를 내며 바닥에 풀썩 쓰러진다. 열려있는 대문 사이에 서있는 연주의 모습이 마치 상자 속에 갇힌 듯 하다. 쓰러져있는 남자의 배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 바닥에 놓인 카네이션. 과도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는 연주. 이내 대문 안쪽을 바라본다. 남자의 정원이 햇빛이 들어 시푸르다. 연주가 대문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평화로운 오월의 정오. 정원에 자신의 몸을 눕히는 연주. 그때 연주의 옆쪽에서 무언가 인기척이 느껴진다. 옆을 향하는 연주의 시선. 들려오는 나른한 울음소리 “야옹”

title in. 夜擁